

##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경북공 침략에 관한 군사사적 검토

김 경 록\*

1. 머리말
2. 청일전쟁 이전 일본군의 형성과 군비증강
3. 동학농민전쟁 발발과 일본군의 조선출병
4. 일본군의 경북공 점령과 조선침략
5. 맺음말

### 1. 머리말

청일전쟁 12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에 관련한 학계의 연구는 괄목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국내외적으로 최근 동북아 한국, 일본, 중국의 역사논쟁이 격화되면서 청일전쟁은 주요 논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청일전쟁에 관한 외국학계의 연구는 특히 두드러진다. 중국학계는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갑오전쟁이라 하여 최근 동북아 삼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역사논쟁과 관련되어 방대한 성과를 거두었다.<sup>1)</sup> 군사사의 측면에서 陸戰에 대한 연구보다 海戰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 주도권 전환, 일본의 제국화 등이 해군력의 승패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인식과 1990년대 이후 중국의 해군력 확장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역사연구 필요성 때문이다.<sup>2)</sup>

이러한 중국학계의 청일전쟁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는 戚其章이다. 척기장은 자신의 연구성과를 정리하며 『甲午戰爭新講』을 저술했다.<sup>3)</sup> 이 책에서 저자는 청일전쟁의 과정을 일본 명치정부의 전쟁도발을 강조하여 개전외교와 책략, 선전포고 없는 전쟁도발, 고승호사건, 성환 전투와 평양전투 등 초기 육전의 패배를 통한 교훈, 황해해전과 육해군 합동의 전술, 일본 육해군이 개별 요동지역 침범, 여순참패, 요동전역, 요하전투, 위해진의 함락, 유공도전투, 마관조약, 일본군의 대만점령 등을 서술했다. 청일전쟁 이전의 상황을 군비강화측면, 외교측면에서 정리하고 개전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동학농민전쟁을 활용하여 개전외교를 시행했으며, 성환전투 이후 유공도전투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교훈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국중심의 전투 중심 서술과

1) 王信忠, 『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 國立清華大學, 1937; 關捷·孫克復, 『甲午中日陸戰史』, 黑龍江人民出版社, 1984; 關捷·唐功春·郭富純·劉恩格 등 主編, 『中日甲午戰爭全史』 吉林人民出版社, 2005 등.

2) 1990년대 이후의 주요 연구성과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姜鳴 編著, 『中國近代海軍史事日誌(1860-1911)』, 三聯書店, 1994; 呂一燃 主編, 『中國海疆歷史與現狀研究』, 黑龍江出版社, 1995; 張秀蘭, 『中日甲午戰爭是近代東北亞國際關係的重大轉折』, 『學習與探索』1, 1995; 張俠·楊志本·羅澗波·王蘇波·張利民 合編, 『清末海軍史料』, 海洋出版社, 2001; 楊金森·范中義, 『中國海防史』, 海軍出版社, 2005; 王宏斌, 『晚清海防-思想與制度研究』, 商務印書館, 2005; 劉中民 等著, 『中國近代海防思想史論』, 中國海洋大學出版社, 2006; 史滇生 主編, 『中國海軍史概要』, 海潮出版社, 2006; 李強華, 『晚清海權意識的感性覺醒與理性匱乏』, 『廣西社會科學』 2011-4 등.

3) 戚其章, 『甲午戰爭新講』, 中華書局, 2009. 척기장은 『中日甲午威海之戰』(1962, 1978), 『中日甲午戰爭史論叢』(1983), 『甲午戰爭與近代社會』(1990), 『甲午戰爭史』(1990, 2005), 『甲午戰爭國際關係史』(1994), 『國際法視角下的甲午戰爭』(2001), 『甲午日艦密史』(2004), 『走近甲午』(2006), 『北洋艦隊』(1981), 『晚清海軍興衰史』(1998) 등 50여 년 연구를 회고하고 새로운 청일전쟁 정리저서를 냈다.

정치·외교·전쟁사 중심 서술로 구체적인 군사사의 전략, 전술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본학계는 청일전쟁 당시의 기초 사료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전쟁을 합리화하는 연구경향과 역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까지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다.<sup>4)</sup> 일본의 경우, 기초사료는 청일전쟁 직후 참모본부의 『明治二十七八年 日清戰史』, 『日清戰史』 등이 있는데, 일본의 침략성을 은폐하고 청일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이들 자료를 활용한 이후 일본학계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육군성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청일전쟁관련 전사도 전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기초사료와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고, 이후 청일전쟁 연구에 영향을 미쳐 혼성여단 파견 및 경복궁 점령 등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기술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sup>5)</sup> 한편, 일본의 침략성을 명확하게 지적하며 청일전쟁 초창기 일본의 전쟁의도를 밝히고 경복궁 점령에 관련한 기존 사료 및 연구를 비판한 일련의 연구도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 재일한국인 학자 朴宗根의 연구이다. 『淸日戰爭과 朝鮮』을 통해 일본의 청일전쟁 준비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조선의 대응을 소개했다. 또한,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는 청일전쟁 당시부터 일본에 의해 경복궁 점령을 비롯한 일본군의 전쟁준비 및 침략성을 미화하여 왜곡시켰음을 후쿠시마 현립도서관에서 발견된 『일청전사』 초안을 통해 검증하였다.<sup>6)</sup>

4) 鷄林通史 編, 『朝鮮變亂實記』, 扶桑堂, 1894; 信夫清三郎, 『陸奥外交 - 日清戰爭の外交史的研究』, 叢文閣, 1935; 田保橋潔, 『近代日鮮關の研究』, 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日清戰役外交史の研究』, 刀江書院, 1951; 中塚明, 『日清戰爭の研究』, 青木書店, 1968; 彭澤周, 『明治初期日韓清關係の研究』, 上高書店, 1969; 藤村道生, 『日清戰爭』, 岩波書店, 1973 등.

5) 參謀本部 編, 『明治二十七八年 日清戰史』, 東京印刷株式會社, 1904; 川崎三郎, 『日清戰史』, 博文館, 1896; 陸軍省 編, 『明治軍事史』, 原書房, 1966; 廣瀬彦太 編, 『近世帝國海軍史要』, 海軍有終會, 1938; 松下芳男, 『明治軍制史論』, 有斐閣, 1956; 藤原 彰, 『日本軍事史』, 日本評論社, 1987; 高橋秀直, 『日清戰爭ほの道』, 創元社, 1995; 후지무라 미치오 지음, 허남린 옮김, 『청일전쟁』, 小花, 1997 등.

한국학계는 청일전쟁 자체보다는 동학농민전쟁과 관련하여 주로 정치, 경제, 외교분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방대한 연구성과를 축적했다.<sup>7)</sup> 이러한 한국학계의 방대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청일전쟁의 기본적인 군사사적 접근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청일전쟁의 개전문제를 선구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어 향후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sup>8)</sup> 그러나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제반 분야를 함께 다루어 군사사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부 군사사적 접근의 연구가 있었지만, 다분히 정치, 외교사적 분석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sup>9)</sup>

- 
- 6) 中塚明 지, 박맹수 역,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푸른역사, 2002. 나카즈카 아키라는 「歴史の偽造 -1894年7月の日本軍の景福宮占領をめぐる-」, 『竹堂李炫熙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1, 1997에서 경복궁점령에 대한 일본의 역사왜곡을 이미 지적했다.
- 7) 박영재, 「淸日戰爭과 日本外交-遼東半島 割讓問題를 中心으로」, 『역사학보』 53, 1972; 송충식, 「淸日戰爭前夜 韓半島를 둘러싼 國制關係 -撤兵問題를 中心으로-」, 『한국학보』 6-2, 일지사, 198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淸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列強』,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문희수, 「제3장 청일전쟁과 한국의 북방관계 (1894-1899)」, 『한국정치외교사논총』 6, 1990; 강창성, 『한국-일본 軍閥政治』, 해동문화사, 1991; 신복룡, 「청일전쟁 이전의 조선에 대한 청·일양국의 이해관계와 개전」, 『西巖趙恒來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아세아문화사, 1992; 최덕수, 「청일전쟁과 동아시아의 세력변동」, 『역사비평』 26, 1994; 김영작·김용욱·김혜승·문희수·신국주·이달순·이재석, 『한국 근대정치사의 쟁점: 청일전쟁·갑오개혁·김옥균 암살』, 집문당, 1995; 김기혁 등, 『淸日戰爭의 再照明』,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구선희, 「淸日戰爭 直前 朝鮮 「屬邦」問題와 朝·淸關係」, 『史學研究』 54, 1997; 최석완, 「日本政府의 동아시아질서 재편정책과 淸日戰爭」, 『동양사학연구』 65, 1999; 이민호, 「淸日戰爭과 朝鮮에 미친 영향」, 『동서사학』 8, 2001; 최석완, 「청일전쟁기의 일본정부의 동아시아질서 재편정책 -조약개정 외교와 「6.2 조선 파병 결정」 보고서-」, 2002; 김보경, 「청일전쟁 전후 국제질서 인식의 변화」,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4; 박맹수, 「19세기 말 동아시아 전쟁에 대한 일본인의 「왜곡된」 기억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1, 2004; 고영자, 『청일전쟁과 대한제국: 대한제국의 몰락을 주도한 일본의 교란책』, 탕자출판사, 2006; 엄찬호, 「淸日戰爭에 대한 조선의 대응」, 『한일관계사연구』 25, 2006; 강문호, 「『蹇蹇錄』이 말하는 東學農民戰爭의 의미」, 『동학연구』 24, 2008 등.
- 8) 동덕모, 「淸日戰爭과 韓國 -淸日兩國의 派兵을 中心으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사회과학계』 4, 문교부, 1974; 김창수, 「淸日戰爭前後 日本의 韓半島 軍事侵略政策」, 『淸日戰爭과 韓日關係』, 일조각, 1985; 박종근 지, 박영재 역, 『청일전쟁과 조선』, 일조각, 1989; 강효숙,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조선병참부-황해·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51, 2009 등.
- 9) 金舜圭, 「청일전쟁-청측의 패인 분석-」, 『군사』 16, 1988; 양태진, 「淸日戰爭은 왜

경복궁 점령작전은 일본군의 청일전쟁에서 최초의 무력행사로 본격적인 청일전쟁을 위한 기반조성 및 명분확보에 선행된 군사행동이었다. 전쟁이란 군사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군사사적 접근은 간과하고 정치, 외교적 분석에 집중된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군사사의 측면에서 청일전쟁의 개전으로써 일본 혼성여단의 조선출병이 가지는 의미를 배경, 준비과정, 구체적인 군사작전 등에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대상시기는 일본군의 조선 출병이전부터 경복궁 점령작전까지를 대상시기로 하고, 구체적인 편제, 동원시기, 출병과정의 문제점, 인천상륙 이후 경복궁 점령까지 부대배치, 조선군의 대응과 실패요인 등을 다룬다.

## 2. 청일전쟁 이전 일본군의 형성과 군비증강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지속적으로 서구열강과 체결한 불공평한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서구열강과 체결한 조약에서 불공평한 요점은 治外法權, 關稅自主權, 片務的 最惠國條款 등이었다. 독립국으로서의 위상과 개국 이후 급속한 군사·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개정이 필수적이었던 일본은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를 특명전권대사로 한 대규모 사절단을 서구열강에 파견했다. 1871년 11월 동경을 출발한 사절단은 약 1년의 일정을 마치고 일본의 조약개정문제에 대한 열강의 의향을 파악했다. 조약개정은 미국과 1878년 7월 25일, 美日新通商條約을 조인했지만, 교섭내용에 대한 국내의 이견과 열강의 입장이 충돌하여 최종적으로 1894년 11월 22일, 美日通商航海條約 및 同附屬議定書가 조인된 이후 1897년 12월 5일 오스트리아·헝가리와 通商航海條約을 조인하기까지 서구열강과의 조약개정을

韓半島에서 일어나야 했는가, 『軍史』 29, 1994; 심현용,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관계사: 영토확장·청일전쟁·러일전쟁을 중심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완료했다.<sup>10)</sup>

이러한 외교적, 대외적 국가위상의 정립과 동시에 명치정부는 지속적으로 군사력의 확충에 집중했다. 1868년 명치유신으로 등장한 일본정부는 부국강병정책을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군사체제의 정비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1868년 軍防局을 두고 御親兵을 통솔하게 하여 명치천황의 군사력으로 활용했다. 1869년 관제개편을 통해 太政官 밑에 兵部省을 설치하여 郷兵, 招募, 守衛, 軍備, 兵學校 등을 관장하게 했다. 오무라 마스지로(大村益次郎)의 강력한 군사정책으로 징병제에 의한 상비군 구성, 체계적인 군사교육 실시, 해군력 양성, 군수산업 육성 등이 추진됐다. 1870년 병부성에 陸軍掛, 海軍掛가 각각 육·해군의 관련 업무를 관장했으며, ‘常備編隊規則’을 각 藩에 하달하여 보병과 포병 편제의 기준을 정하고 兵制를 통일시켰다. 1871년 사쓰마, 조슈, 도사의 3雄藩의 병력으로 어친병을 구성한 뒤 廢藩置縣을 단행하여 지방군제를 병부성에 집중시켰다.<sup>11)</sup>

일본군의 근대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은 西南戰爭에서 출발한다. 서남전쟁은 군사적으로 봉건적인 군사제도에서 근대적인 국민군체제로 전환을, 정치적으로 내부 도전세력이 제거된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근대국가체제정비에 몰두하는 계기가 되었다.<sup>12)</sup> 특히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가 1870년대 후반의 일본정치를 주도하면서 본격적인 殖産興業을 통해 군사관련 분야의 안정적인 축적을 가져왔으며, 이는 1880년대 전략변화와 군비증강의 밑거름이 되었다.<sup>13)</sup>(기존의 한 문장 생략)

일본군은 鎮臺體制를 유지하였다가 서남전쟁 이후 師團體制로 전환

10) 본 논문은 양력으로 일자를 표기한다.

11) 松下芳男, 『明治軍制史論』(上), 有斐閣, 1956. 32~105쪽. 육군의 경우, 1871년 4鎮臺(동경: 니가타-우에다-나고야, 오사카: 고타마-다카마쓰, 鎮西: 히로시마-가고시마, 東北: 아오모리)를 설치하여 기존의 諸藩 상비병으로 충당했다.

12) 박영준, 『명치시대 일본군대의 형성과 팽창』, 국방군사연구소, 1997, 376쪽.

13) 박영준, 1997, 위의 책. 377~381쪽.

됐다. 일본육군은 1873년 1월 10일, 징병령을 공포하고 센다이, 도쿄,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구마모토 등 6대 도시에 진대를 설치하고 보병, 기병, 포병, 공병, 치중병 등 5병종을 배치했다. 1883년 군비확장 계획에 의거하여 육군의 병력과 장비를 크게 확장시키고, 1888년 기존의 진대체제를 사단체제로 전환시켜 각 사단에는 보병 4연대, 포병 1연대, 기병 1대대, 공병 1대대, 치중병 1대대가 배속되었다. 대략 사단은 10,000명에서 20,000명 규모로 6개 사단을 합하여 약 100,000명의 병력을 보유했다.

일본정부는 군사편제 및 물리적인 무기체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장교와 병사들의 정신무장도 강조했다. 1877년 서남전쟁이란 내부반란을 경험하고, 1878년 왕실근위대의 반란은 일본군대의 근대화에서 치명적으로 노출된 문제였다. 당시 육군경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비롯한 군부지휘관들은 정신교육의 강화, 지휘체계의 정비, 내부적인 불만을 타개하기 위한 대외적인 전략목표의 설정과 지속적인 군비확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sup>14)</sup> 일본 무사도의 전통을 근대적인 편제와 무기체계에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정신교육이 필요했다. 그 일환으로 1878년 8월 육군경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일반 병사와 장교들의 정신교육 지침서로 제시한 ‘軍人訓戒’, 뒤이어 1882년 1월에 명치천황이 일본군대에 하사한 ‘軍人勅諭’는 정신교육의 종합이라 할 것이다.<sup>15)</sup> 군인훈계와 군인칙유는 군인정신을 밝히고 세부적인 군인윤리를 강조하였으며, 일본군대는 국민 가운데 선민이며, 천황제의 신임할 수 있는 부하라는 칙유를 통해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강조했다. 그 결과 일본군대는 절대권력이 설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맹목적인 도구로 전락하여 일본 군국주의에 첨병이 된 측면도 있다.<sup>16)</sup>

14) 박영준, 1997, 위의 책, 384~386쪽.

15) 『幹部候補生案内: 志願より除隊まで』 11장, 「軍人訓戒」, 陸軍壯丁教育會, 昭和 9 (1934); 『明石叢話』 권7, 「軍人勅諭」, 明石爲次, 1926.

16) 박제홍, 「메이지천황과 學校儀式교육」, 『일본어문학』 28, 2006. 261쪽. 메이지시대

청일전쟁에 대한 대비차원은 아니지만, 일본이 청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하기 시작한 것은 18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 개항 이후 근대적인 군대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일본을 위협하는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통해 합리적인 군사력을 양성하고자 했다. 처음으로 일본이 상정한 가상의 적은 러시아였다. 사할린과 지시마(千島) 열도는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을 상정하게 했기 때문에 일본 병부성은 1870년 정책보고서 및 1872년 군비의견서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했다.<sup>17)</sup> 그러나 대만정벌, 서남전쟁, 정한론, 병자수호조규, 임오군란 및 갑신정변 등으로 청과 군사적 충돌상황이 발생하고 청에 의해 일본의 군사적 의도가 좌절되자 현실적인 적으로 청을 상정하게 됐다.

한편, 일본군부가 청을 적으로 상정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방대한 병력을 보유한 청을 적으로 상정함으로써 일본군부의 군비확장론이 추진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군부의 군령기관으로 참모본부를 신설하고 참모본부장에 취임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은 1878년 육군을 기존 병력의 2배인 7개 사단으로 증강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군비증강 10개년계획을 제시하고, 이후 장교들을 청 주재무관과 어학연수생으로 파견하여 청의 군사력을 정탐하고 1880년과 1881년에 육군성에서 청의 군사력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 『隣邦兵備略』, 『支那地誌』 등을 출판했으며, 1880년에 별도의 「進隣邦兵備略表」를 천황에게 제출하여 아시아 정세를 논하며 청에 대항하기 위해 군비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sup>18)</sup> 또한, 1883년 6월에 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일본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對淸意見書’를 작성했다.

---

천황에 의해 강요된 교육은 점차 새로운 천황상을 정립하여 국민의 수신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전개됐다. 教育勅語, 學校祝日, 祭日 儀式教育은 學校儀式教育의 틀로 정립되는데 1890년 教育勅語 발표, 1891년 學校儀式教育의 제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배우는 학생들에게 國定修身教科書를 통한 천황에 대한 충성일변도의 교육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이후 학교행사로 정착됐다.

17) 박영준, 『명치시대 일본군대의 형성과 팽창』, 국방군사연구소, 1997, 393~394쪽.

18) 박영준, 1997, 위의 책, 394~395쪽.

이후 일본의 대청 군비확장론 전개 및 입안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오군란 이후 일본정부 내에서 군부측의 군비확장을 주장하는 강경론과 일본의 상황 및 재정을 고려하여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해결을 주장하는 유화론이 대립했으며, 이는 청과의 직접적인 대결은 회피하고 조선에 대해 소극적인 원조를 실시하고 내부적으로 군비확장을 추진한다는 절충점을 찾았다.

〈표 1〉 1880년대 초반 일본의 군비확장론 전개과정

시기	주창자	내 용
1881.09	福澤諭吉	• ‘時事小言’: 러시아와 영국의 아시아 침략에 대비하여 느리고 둔한 청과 조선과 달리 열강을 침략을 피하기 위해 일본 스스로 무비 확대
1881.12	海軍卿 川村純義	• 1882년 이후 매년 3척의 군함 건조하여 20년간 60척 완성 • 57개년 내 새로운 조선소 건설
1882.	福澤諭吉	• 『兵論』: 구체적인 군비증강의 목적과 방법 제시
1882.08	外務卿 井上馨	• 청에 대항하기 위해 군비확장 필요성 강조 : 해군력 강화를 위해 독일에서 砲艦 3'4척 구입 제시
1882.08	參事院議長 山縣有朋	• ‘육해군확장에 관한 財政上申’ 제출
1882.09	右大臣 岩倉具視	• ‘군비확장 의견서’ 제출
1882.11	海軍卿 川村純義	• 수정된 ‘해군확장계획’ 상신 : 군함 60척 목표(현보유 12척 + 8년간 48척 건조)
1882.12	大藏卿 松方正義	• 군비확장계획, 1883년 예산안 입안
1882.12	政府	• 육해군의 구체적인 군비증강 계획작성 하달
1882.12	陸軍省	• ‘軍備擴張費取調書’ 제출 : 1888년까지 보병 28연대, 포병 7연대, 기병 1대대 등 현 병력의 2배 증강 주장
1883.01	海軍省	• 건함계획 제출 : 32척(대함 5, 중소함 15, 수뢰포함 12)
1883.01	政府	• 수정 군비확장계획 확정 : 1885년부터 6개년에 걸쳐 육군의 부대증가비 250만엔 지출, 해군의 군비증강계획 수정
1883.02	右大臣 岩倉具視	• 새로운 해군 군비확장계획 작성 지시
1883.04	海軍省	• 海軍省改革取調書 제출 : 보유목표 40척(매년 2척씩 20년간)
1883.05	政府	• 수정된 군비확장계획안 결정

임오군란을 직접적 계기로 청을 실질적인 적으로 상정하면서 일본군부의 군비확장론은 확산되어 긴축예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육군은 1873년 징병령에 의해 근위 및 6개 진대, 보병 14연대 등의 규모에서 서남전쟁을 거치면서 보병 2개 연대가 증가되었다가 1884년 이후 보병 28개 연대, 기병 7개 대대, 포병 7개 연대, 공병 7개 대대, 치중병 7개 대대 등을 목표로 증강됐다. 해군은 1880년대 말까지 대함급(3000톤 이상)으로 浪速, 高千穂, 畝傍 등 3척을, 중함급(2000톤 이하)으로 葛城, 高雄, 大和, 武藏, 筑紫 등 5척을, 소함급(1000톤 이하)으로 愛宕, 鳥海, 摩耶 등 3척을 새로 건조하여 대형화, 기동화됐다.<sup>19)</sup> 이에 따라 일본군은 국내치안을 주 임무로 하던 군대에서 열강에 대응하고 주변국에 대한 침략이 가능한 군대로 변화됐다.<sup>20)</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군비증강을 통해 일본군은 국내치안의 군대에서 침략가능 군대로 전환되었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휘하는 군사지휘체계를 개편했다. 특히, 군령기관으로 일본군의 군사작전을 총지휘하는 참모본부의 신설은 일본군을 방어중심에서 공격중심으로, 군정과 군령의 일원주의에서 이원주의로 전환시켰다. 명치유신이라 군정과 군령을 통합한 프랑스식 군사일원조직을 구축했던 일본군은 1870년대 후반 독립된 독일식 군령기관의 설치를 받아들여 1878년 12월 5일 참모본부를 설치했다. 신설된 참모본부는 육해군성에서 독립된 최고의 군령기관으로 수장인 참모본부장은 천황에게 직속되고 법제상 太政大臣과 병립했다.<sup>21)</sup>

그러나 여전히 일본군부의 입장에서 육군성, 참모본부 간에 명확한 기능분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에 1889년 3월 18일, 칙령을 통해 ‘參謀本部條例’를 개정하여 육·해군의 군사계획을 참모본부가

19) 廣瀬彦太 編, 『近世帝國海軍史要』, 海軍有終會, 1938. 886~887쪽.

20) 藤原 彰, 『日本軍事史』(上), 日本評論社, 1987. 58쪽.

21) 松下芳男, 『明治軍制史論』(下), 有斐閣, 1958. 3~8쪽.

주관하도록 하여 육·해군성의 권한을 제한하고, 참모본부 내에 육·해군의 2부를 나누고 각 3국을 설치하고, 육·해군의 장관을 각 1명씩 본부차장으로 두어 참모본부장을 보좌하도록 했다.<sup>22)</sup>

참모본부의 신설 및 개정과정은 육군성으로부터 참모본부의 독립이었다. 일본군은 군비증강의 핵심사항으로 해군력을 증강시키면서 해군의 작전권 및 지휘권을 해군성으로부터 독립시켜 청과의 제해권 쟁탈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국가재정의 문제, 육군과의 군사비 확보 경쟁으로 인해 해군의 건함계획은 1880년대부터 1890년대 초반까지 우여곡절을 거쳤다. 그러나 청일전쟁 직전에 해군은 각종 군함 31척, 수뢰정 24척, 총 배수량 61,373톤의 전력을 보유하여 청의 북양해군과 일전을 겨룰 정도였다. 전력증강 뿐만 아니라 1893년 ‘海軍軍令部條例’를 제정하여 군정기관 해군성으로부터 해군군령부를 독립시켜 해상작전 수행에 효율적인 전투태세를 갖추 수 있게 되었다.<sup>23)</sup>

일본군은 육군성에서 참모본부, 해군성에서 해군군령부 독립은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분리를 통해 군사지휘체계를 확립한 뒤, 이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전쟁수행시 전시작전에 대한 일원적인 지휘를 위해 戰時大本營을 설립했다. 일본정부는 1893년 ‘戰時大本營條例’를 공포하여 전시 육·해군의 통합작전 지휘권을 참모총장에게 집중시켰다.<sup>24)</sup> 점차 청과의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외침략전쟁 수행에 있어 육군과 해군의 통합된 전장중심의 지휘권이 필요하자 전시대본영을 중심으로 전시 전력의 집중을 지향했다. 일본군이 가정하는 전장은 조선이었기 때문에 해군력을 통해 육군을 전장으로 수송하고 청의 막강한 해군과 제해권을 두고 전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육·해군의 통합지휘는 필수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대본영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된 것이다.

22) 陸軍省 編, 『明治軍事史』(上), 原書房, 1966. 696~698쪽.

23) 蜷川新, 『三大國際會議と日本』 駒澤大學出版部, 1930, 31~35쪽.

24) 『官報』 제2,966호, 明治 26년(1893) 5월 22일.

### 3. 동학농민전쟁 발발과 일본군의 조선출병

조선후기 사회혼란의 총체적인 부패상을 반영하여 1894년 4월 동학농민전쟁이 발생하자, 당시 정권을 담당한 민씨정권은 탄압책을 채택했다. 全羅道兵馬使兼壯衛營正領官 洪啓薰을 兩湖招討使로 임명하고 중앙의 壯衛營 병력 800명을 지휘하여 진압하도록 했다.<sup>25)</sup> 조선정부는 순변사 李元會를 추가로 파견하여 대응했는데, 당시 서울엔 각종 유언비어가 남발되어 민심을 소란스럽게 했다. 고종은 閔泳駿을 불러 대책을 논하여 청의 원병을 청하도록 했다.<sup>26)</sup> 진압군은 문란한 군기와 사기저하 등으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한 반면, 동학군은 종래 민란과 달리 조직력과 전투력이 뛰어난 동학군은 5월 31일, 全州를 함락시켰다. 조선정부는 전주함락의 보고를 받고 중신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sup>27)</sup> 청의 원병을 주장하는 고종, 민영준 등에 대해 金炳始를 비롯한 대신들은 반대의견이었다. 여러 차례의 논쟁을 통해 결국 고종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淸館에 照會文을 발송하고, 6월 4일 공식적으로 議政府照會를 보내어 청의 원병을 요청했다.<sup>28)</sup>

조선과 청 사이에 원병교섭이 진행됨과 동시에 일본은 조선출병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실제 동학에 관련한 일본의 관심은 1893년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하였으며, 일례로 조선국주차변리공사였던 오이시 마사미(大石正巳)가 일본 외무성에 보고한 이후 동학교도의 동향, 동학농민군의 동향, 현황, 조선정부의 대응 등을 상세하게 보고했다.<sup>29)</sup> 당시 조선주재 일본외교공관은 경성에 있던 일본 공사관,

25) 『고종실록』권31, 고종 31년 4월 무신.

26) 『梅泉野錄』권2, 고종 31년, 請援于淸國.

27) 김창수, 「청일전쟁전후 일본의 한반도 군사침략정책」, 『청일전쟁과 한일관계』 일조각, 1990. 3~9쪽.

28) 『駐韓日本公使館記錄』권1, 諸方機密信2, 朝鮮政府が淸兵借用ニ至リタル顛末探聞.

29) 박맹수,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의 정보수집활동」, 『역사연구』 19, 2010, 149쪽.

경성영사관, 인천영사관, 부산영사관 등이 경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했다. 특히, 동학농민전쟁이 발발하면서 조선주재 일본영사들은 동학농민전쟁의 전황을 수시로 수집하여 본국에 보고했다.<sup>30)</sup> 일본 외교관들이 수집한 정보는 조선정부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진압정책, 전황, 동학군의 동향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고한 내용은 조선군의 군사현황이었다. 1894년 6월 1일, 인천주재 二等領事 能勢辰五郎이 서울의 臨時代理公使 스키무라 후카시(杉村 濬)에게 보고한 仁川兵隊의 操出관련 보고는 상세한 조선군의 동향을 포함했다.<sup>31)</sup> 구체적으로 江華總制營의 70명이 야포 1문, 화약 4상자, 탄약 2상자를 휴대하고 別將 南宮掬이 인솔하여 22일자로 利運社의 기선 蒼龍號를 타고 전라도 扶安의 法聖을 향해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평안도 병력을 기다려 함께 출발할 예정이라는 상세한 내용이었다.

일본군의 조선출병에 일본의 정세도 큰 영향을 미쳤다. 1894년 4월 일본의회는 내각의 행위를 비난하는 상주안이 의결되어 내각은 의회해산의 조칙을 주청하는 등 내각과 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한 시기였다. 4월 29일, 내각총리관저에서 내각의 대응 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조선주재 공사가 조선의 원병파견 요청에 관한 전보가 전해졌다.<sup>32)</sup> 비상한 시기에 일본군의 출병을 시행하여 청군의 파병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내각회의에 상정되고 이는 일사천리로 가결되었다. 즉, 당시 의회로부터 압력을 받던 내각이 정국을 타개하는 방책으로 일본군 출병을 부각시켰다.

또한, 조선정부의 청군출병 요청은 조선주재 일본영사들에 의해 본국에 즉시 보고됐다.<sup>33)</sup> 조선주재 臨時代理公使 스키무라 후카시가 外務大臣

30) 『駐韓日本公使館記錄』권1, 全羅民擾報告 宮闕內騷擾ノ件1. 초토사의 장계를 필사하여 보고하거나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보고한 發第56號(元山領事), 發第104號(釜山總領事), 發第116號(在京城 內田領事), 發第117號(在仁川 能勢領事) 등이 있었다.

31) 『駐韓日本公使館記錄』권1, 全羅民擾報告 宮闕內騷擾ノ件1, 仁川兵隊操出ノ件.

32) 『蹇蹇錄』 33~34쪽.

무츠 무네미츠(陸奧宗光)에게 조선정부가 袁世凱에게 출병 요청한 다음 날 바로 보고했다. 외교라인의 정보수집뿐만 아니라 일본군부의 적극적인 정보수집도 청일전쟁에 대비한 포석으로 분석할 수 있다. 1893년 조선에서 척왜양의 분위기가 조성되자 일본군부는 참모차장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 일행을 조선과 청에 파견하여 정세 및 군사동향을 파악했다. 특히, 이들은 정식 파견이 아닌 상인으로 변복하여 잠행한 점에서 이전부터 준비하던 청과의 전쟁에 대비한 전략적 시찰이 주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34)</sup>

청군의 조선 파병은 李鴻章이 直隸提督 葉志超, 北洋海軍提督 丁汝昌 등을 지휘관으로 하고 순양함 濟遠號, 楊威號 등을 인천에 파견함과 동시에 山西·太原鎮 總兵 聶士成이 지휘하는 선발대 1,500명을 파견한 이래 6월 7일부터 25일까지 약 2,800여 명이 아산만에 상륙했다.<sup>35)</sup> 이러한 정보수집을 통해 1870년대 이후 청을 가상 적으로 상정하고 군사정책을 수립했던 일본군부는 우선적으로 휴가 중이던 오오토리 케이스케(大鳥圭介) 공사를 조선으로 귀임하도록 하고, 임시로 海軍少佐 向山愼吉로 하여금 陸戰隊 400여 명을 지휘하여 호위하도록 했다. 우선 일본정부는 조선주재 일본공사관에 오오토리 공사와 육전대가 도착할 것에 대비해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했다.<sup>36)</sup> 오오토리 공사 일행은 6월 10일 새벽에 인천에 상륙하여 육전대 400여명, 野戰砲 6문, 순사 20명을 지휘하여 곧바로 경성으로 향했다.<sup>37)</sup> 이때 일본은 육전대가

3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권1, 全羅民擾報告 宮闕內騷擾ノ件1, 清國軍出兵에 관한 通知.

34) 박맹수,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의 정보수집활동」, 『역사연구』 19, 2010, 159~161쪽. 가와카미는 1894년 청일전쟁 당시 대분영 참모차장 겸 병참총감으로 동학농민군 진압작전 및 청일전쟁에 직접 지휘부로 관련됐다. 본 논문에서는 논외로 하지만, 일본 해군 함대의 지속적인 정보수집활동이 이루어져 청일전쟁의 핵심전역이었던 해전에 대비한 측면도 있다.

35) 김창수, 「청일전쟁전후 일본의 한반도 군사침략정책」, 『청일전쟁과 한일관계』 일조각, 1990, 14쪽.

3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권4, 歐文電報往復控3, 警察署 및 陸戰隊 수용시설 준비지시.

3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권4, 露日關係1, 公第83號.

경성에 머무는 기간을 단 며칠로 한정했다.<sup>38)</sup> 육전대는 오오토리 공사의 입경과 혼성여단의 전개 사이에 경비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육전대와 혼성여단의 임무교대가 곧바로 이어질 것을 계획했기 때문이었다. 뒤이어 6월 13일, 陸軍歩兵少佐 一戸兵衛로 하여금 第5師團歩兵第11聯隊第1大隊(工兵1小隊 포함)를 지휘하여 육전대와 임무교대하고, 주력을 서울에 주둔시키고, 일부 파견대를 星峴, 麻浦에 배치하여 육로와 수로를 감시하도록 했다.

육전대의 파견과정에서 일본군의 불법적인 측면은 명확하게 파악된다. 육전대를 포함한 일본군의 조선출병에 대해 6월 7일, 스키무라 임시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조선은 督辦交涉通商事務 趙秉稷으로 하여금 일본임시대리공사 스키무라에게 조회를 보내 동학 및 공관호위를 빙자한 일본군의 출병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sup>39)</sup> 주일 조선공사 金思轍을 통해 일본정부에 철병을 철회하도록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조선에 육전대를 긴급 파견했다. 육전대의 파견 자체 뿐만 아니라 육전대의 공사관 수비를 위해 경성에 진입하면서 조선에 통보된 병력수는 300명으로 축소했다.<sup>40)</sup> 육전대의 출병뿐만 아니라 혼성여단의 출병과 서울 주둔 등 일본군의 출병은 일본이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조청관계(중속관계)의 개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군사행동이었다. 독립국가의 조선이 거부하는 출병을 자국 마음대로 자행하면서 조선의 독립국가로서 역할을 요구한다는 논리가 모순된다.

혼성여단의 출병은 공사관 보호라는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벗어나 조선에 대한 군사침략 및 청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의도한 점에서 전쟁유발의 실질적인 계기가 됐다. 혼성여단의 창설 및 출병과정을

38) 『駐韓日本公使館記錄』권4, 歐文電報往復控1, 陸戰隊員 滯京豫定日 通報.

39) 『舊韓國外交文書』日案2, 고종 31년 5월 5일, 東學亂 및 公館護衛憑藉의 派兵方 針撤回要求.

40) 박종근, 『청일전쟁과 조선』, 일조각, 1989, 19쪽.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참모본부는 1894년 6월 2일, 조선에 1개 혼성여단의 파견을 결정하고, 5일, 大本營을 설치함과 동시에 제5사단의 일부 병력을 주축으로 1개 혼성여단을 조선에 파견할 것을 천황에게 건의하여 재가를 받았다. 이때 건의는 참모본부장 熾仁親王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부대명칭은 혼성 제9여단으로 하고, 보병 제9여단, 기병 제5대대 제1중대, 야전포병 제5연대 제3대대, 공병 제5대대 제1중대로 구성했다. 세부적인 혼성여단의 전투서열은 다음과 같다. 일본군부는 혼성여단의 조선파견에 연이어 1894년 6월 12일, 천황의 재가를 거쳐 제5사단의 잔여병력을 모두 조선에 파견하여 본격적인 청일전쟁에 대비했다.<sup>41)</sup>

혼성여단은 조선까지의 수송거리를 고려하여 廣島の 제5사단(사단장 中將 子爵 野建道貫)을 근간으로 창설되었다. 5사단의 관할 하에 있던 字品港 부근에 주둔하던 보병 제9여단(여단장 소장 大島義昌)을 주력으로 각 병종을 추가 편성했다. 혼성여단은 보병 제11연대, 21연대를 주축으로 하는데, 각 연대에 3개 대대가 소속되었으며, 혼성여단에 병참감부와 병참사령부를 2개 소속시켜 兵站輜重에 관련하여 긴급하게 혼성여단을 구성하여 조선에 파견하다보니 補充隊를 별도로 계획하여 편성하고, 5사단 주둔지 주변에서 鄉兵을 소집하여 동원시켰다. 혼성여단에 별도의 병참관련 부대를 편성하고 향병을 소집한 이유는 조선에서 탄약, 양식 등의 운반을 위한 馬匹조달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었기 때문에 馱馬, 輜重輪卒, 軍夫 등으로 충원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혼성여단의 편성은 일시에 완료될 수는 없어 혼성여단의 조선출병이 1차, 2차 수송으로 분리 계획됐다.<sup>42)</sup>

6월 16일부터 17일에 걸쳐 육군소장 오오시마 요시마사(大島義昌)가 지휘하는 混成旅團(보병 第11聯隊, 第21聯隊, 기병 第5大隊 第1中隊,

41) 陸軍省 編, 『明治軍事史』(上), 原書房, 1966. 906쪽.

42) 參謀本部 編, 『明治二十七八年 日清戰史』卷1, 東京印刷株式會社, 1904. 97~101쪽.

야전포병 第5聯隊 第3大隊, 공병 第5大隊 第1中隊, 輜重 및 兵站부대 약간 포함)가 인천에 상륙하여 임시 주둔했으며, 17일에 대위 原野兼이 지휘하는 보병 第21聯隊 第8中隊가 부산에 상륙하여 주둔했다.

〈표 2〉 일본군의 조선출병 수송현황

구 분	부 대
1차 수송부대	훈성여단사령부, 보병 제11연대, 기병 제5연대 제1중대(2소대 缺), 야전포병 제5연대 제3대대본부와 제5중대, 공병 제5대대 제1중대, 제1야전병원, 치중대 절반, 병참감부와 사령부 1개
2차 수송부대	보병 제21연대, 기병 제5대대 제1중대 2소대, 야전포병 제5연대 제6중대, 위생대 절반, 제2야전병원, 치중대 절반, 병참사령부 1개
3차 수송부대	사단사령부와 그 支部, 보병 제12연대, 기병 제5대대본부와 제2중대 2소대, 야전포병 제5연대본부와 제1대대, 양식半縱列, 탄약대대본부와 보병탄약半縱列, 산포탄약 1縱列, 攻城廠縱列, 輜重監視隊 1隊
4차 수송부대	보병 제10여단사령부, 보병 제22연대, 기병 제5대대 제2중대(2소대 缺), 야전포병 제5연대 제2대대, 치중병 제5대대본부와 양식半縱列, 보병탄약半縱列, 산포탄약 1縱列, 위생대 1隊, 야전병원 1개, 野戰砲廠 1개, 砲廠監視隊 1隊, 衛生豫備員 1개, 衛生豫備廠 1개

※ 출처 : 參謀本部 編 『明治二十七八年 日清戰史』 卷1, 東京印刷株式會社, 1904. 97~101쪽.  
 ※ 3차, 4차 수송부대는 1894년 6월 하순에 동원을 완료하여 7월 중순 경복궁 점령이 임박하자 수송을 결정했다.

18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청을 가상 적으로 상정하여 청일간 전쟁을 대비하면서 일본군부는 육전에서의 열세는 없다고 판단하고, 해전에서 승리를 위해 해군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했다. 동학농민전쟁과 관련하여 해군의 경우, 일본해군의 전체 전력을 집중하여 조선연안의 감시, 훈성여단의 수송, 풍도해전 등을 원활하게 추진한 반면, 육군은 훈성여단의 긴급한 편성과 같이 상대적으로 지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6월 5일, 병종의 편성 要綱을 마련한 제5사단은 動員수를 발표하고, 6월 8일, 대본영은 훈성여단장을 임명하여 일본군의 조선출병 관련 절차를 마무리 했다. 훈성여단의 전투서열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혼성여단 전투서열

직 책	지 휘 관	소속부대
혼성여단장	육군소장 大島義昌	
참모	육군보병 소좌 長岡外史	
歩兵 제11연대장	육군보병 중좌 西島助義	3개 대대
歩兵 제21연대장	육군보병 중좌 武田秀山	3개 대대
騎兵 제5대대 1중대	대위 豊邊新作	
野戰砲兵 제5연대 제3대대	소좌 永田龜	
工兵 제5대대 제1중대	대위 蘆澤正勝	
輜重兵, 衛生隊, 제1야전병원, 제2야전병원		
兵站部	보병 중좌 竹内正策	兵站監部, 憲兵, 監督部, 金糧部, 糧餉部, 兵站司令部1, 2

※ 출전 : 陸軍省 編, 『明治軍事史』(上), 原書房, 1966; 參謀本部 編, 『明治二十七八年 日清戰史』卷1, 東京印刷株式會社, 1904.

한편, 청국주재 일본무관 보병 소좌 神尾光臣이 6월 4~5일에 걸쳐 청군의 출발을 보고하자 일본군은 혼성여단의 선발대를 급하게 구성했다. 보병 1대대(소좌 一戶兵衛), 기병, 공병 각 1소대를 포함한 선발대를 8일까지 소집하여 군함 高雄號의 호위를 받아 조선으로 출발했다. 혼성여단의 사령부와 1차 부대는 원래 계획상 6월 10~11일, 자품항에 병력을 소집하여 승선 출발할 계획이었지만, 대본영에서 9일 조속한 출발을 명령하자 1차 수송부대를 다시 2개로 나누어 당시 소집된 부대는 여단장이 인솔하여 5척의 수송함으로 먼저 출발하고, 잔여 1차 수송부대는 부대정돈이 되는대로 4척의 군함으로 출발하여 늦어도 13일까지 인천에 상륙하도록 했다. 그러나 1차 수송부대의 조선출병은 대본영의 의도와 같이 진행되지는 못했다. 결국 1차 수송부대의 인천상륙이 완료된 시점은 6월 17일이었다. 동시에 6월 17일 보병 제21연대 제8중대가 부산에 상륙했다. 25일 2차 부대가 大連島를 출발하여 27일 인천에 도착했지만, 干潮 때문에 28일 인천에 상륙했다.<sup>43)</sup> 일본군부의 청일

43) 陸軍省 編, 『明治軍事史』(上), 原書房, 1966, 908쪽.

전쟁관련 출병에 있어 침략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상륙 및 주둔지이다.

조선의 요구에 따라 출병한 청군은 아산에 주둔하여 출병목적은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한 반면, 일본군은 인천에 상륙하여 용산 및 서울에 진입함으로써 조선정부에 대한 정치, 군사적 목적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는 출병과정의 정당성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조선의 공식적인 출병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군의 조선출병은 명분이 없어 궁핍하게 내세운 명분이 조선주재 일본공사관과 일본인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조선주재 외국공사관과 외국인에 대한 안전 확보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조선정부에 있었으며, 전라도지역을 중심으로 동학농민전쟁이 발생하여 서울은 상대적으로 치안에 문제가 없었다. 주재국의 동의는 물론 없었을 뿐더러 출병에 대해 철병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외교적, 군사적으로 불합리한 주장을 펼치며 일본군은 출병을 감행한 것이다. 출병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청과의 전쟁을 분명하게 염두에 두었음에도 개전의 명분을 확보하고 정치, 군사적 우위를 고려하여 서울점령을 목표로 조선주재 일본공사관과 일본인의 안전을 내세워 인천에 상륙하여 용산에 주둔함으로써 조선을 압박했다.

물론 일본군은 이러한 군사적 목적을 철저히 은폐하기 위해 공식적인 문서에는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천명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참모본부에서 편찬한 『明治二十七八年 日清戰史』에 수록된 부록에 의하면 ‘훈성여단의 임무관련 명령’, ‘주한일본공사관과 기타 교섭에 관련한 훈령’이 있는데, 당시 일본이 주장하였던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가 훈성여단의 임무이며, 공사관과 기타 교섭에 관련해서 온건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sup>44)</sup>

44) 參謀本部 編, 『明治二十七八年 日清戰史』卷1, 東京印刷株式會社, 1904, 附錄第11, 12.

〈표 4〉 조선에 파견된 혼성 제9여단 병력현황

區分	各兵科						衛生部				軍吏部 軍屬				諸職工長	諸職工	從卒馬卒	人夫	合計			
	長官	上長官	士官	准士官	下士官	卒兵卒	監督	上長官	士官	下士官	看護手	獸醫	士官	下士官						將校同等官	下同等官	
혼성 9여단 사령부	1	1	2		3		8							1	1	1			10	28		
보병 11연대		4	50		203	2,392	393		6	3	12		3	3			5		19	3,093		
보병 21연대		4	48		174	2,400	393		6	3	12		3	3			5		19	3,070		
기병 5대대 1중대			4		13	101	75		1		1	1		1			1		10	208		
야전포병 5연대 3대대		1	9		30	328	131		1	1	2	1	1	1			1		16	523		
공병 5대대 1중대			4		17	200	63		1	1	1			1					4	292		
치중병대			3		12	100	15		1	1	4		1	1			1		15	154		
위생대			2		11	145			5	7	13		1	1					6	53	244	
야전병원						12	95		2	12	18	80		2	4			2	16	102	345	
병참부		3	5		3	10	18	1						5	8		4	5	16	78		
합계	1	13	127		466	5,688	1,191	1	2	33	34	125	2	16	24	1	5	18	2	131	155	8,035

※ 출전 : 陸軍省, 『日清戰爭統計集』上卷-1, 海路書院, 2005. 재판집.

※ 본 표의 병력은 증강상황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임.

일본군의 규모는 중대급이 약 250여 명, 4개 중대로 구성된 대대는 1,000여 명, 3개 대대로 구성된 연대는 3,000여 명이다. 위 표에서 확인되듯 전체 병력은 8,0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부대이다. 또한, 조선에 출병한 일본군 혼성여단의 구성의 살펴보면, 여단의 주력, 독립지대, 수비대, 전선가설대로 구성됐다. 물론 여단의 주력은 용산에 주둔하며 우선적으로 경성 및 경복궁 점령에 투입하여 고종의 신변을 확보하고 조선군의 무장해제라는 당면과제를 수행할 목적이었다. 독립지대는 보강된 청군의 남하에 대비하고 조선군의 경성진입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진강과 동로에 배치되었다. 수비대는 조선주재

공사관과 부산의 영사관을 수비하기 위해 경성, 부산에 배치되었으며, 병참기지를 수비하기 위해 용산, 인천 등에 주둔했다.

전선가설대는 제1지대와 제2지대로 구성되어 제1지대는 공병 제5대대로 7월 3일 부산에 상륙하여 보병중대의 엄호를 받으며 부산에서부터 대구방향으로 군용전선을 가설했다. 제2지대는 7월 5일 인천에 상륙하여 20일부터 보병 제11연대 9중대의 엄호를 받으며 경성에서 부산방향으로 군용전선을 가설했다.<sup>45)</sup> 군용전선 가설은 일본 대본영의 참모본부에서 혼성여단에 하달된 명령에 근거하여 조직됐다.

1894년 6월 27일, 대본영 참모총장 熾仁 親王의 명의로 혼성 제9여단장 大島義昌에게 하달된 명령은 제1, 제2電線架設隊를 편성하여 병참총감에게 소속하고, 제1지대는 釜山에서 淸州까지, 제2지대는 서울에서 청주까지 전선을 가설시키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부산에 주재하는 歩兵中隊(1小隊 缺)는 제1지대 호위로 그 지대장에게 소속시키고, 起工에 앞서 선로정찰을 위하여 士官이 지휘하는 1소부대를 大邱·星州·沃川·청주의 선로에 파견하도록 명령했다. 부산 영사관에 대한 수비는 보병 1소대가 담당하도록 했다. 제2지대의 호위를 위해 부대를 파견하도록 지시했다.<sup>46)</sup>

즉, 일본군부는 동학농민전쟁이라는 조선의 정세에 기인하여 공사관과 일본인의 보호를 명분으로 혼성여단을 조선에 출병시킨 직후에 이미 군용전선의 가설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군용전선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사관과 자국인의 보호를 위한 군사활동에 군용전선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쟁을 고려한다면 필수적으로 가설되어야 한다. 단순 경호작전을 위한 출병이 아니라 공세적인 침략을 위한 군사작전을 고려하여 조선에서 조선군, 청군을 적으로 가정함으로써 1차적인 전략으로 조선을 보호국화 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45) 陸軍省, 『日清戰爭統計集』上卷-1, 海路書院, 2005, 284쪽.

46) 『駐韓日本公使館記錄』권2, 機密本省及其他往來, 電線架設 명령전달의 件.

있다.

가설 구간도 서울에서 인천구간이 아니라 서울-부산구간은 일본군부의 조선출병 초기 군사작전 범위를 가늠하게 한다. 우선적으로 일본군부는 조선 전역을 전역으로 상정하고 청일간, 조일간 전쟁을 대비했던 것이다. 부산은 일본본토에서 가장 근접하여 조선으로 병력과 병참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발생하거나 진행 중인 각종 군사작전을 신속하게 일본 대본영으로 연결하기 위해 서울-부산 구간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군용전선의 가설뿐만 아니라 각 구간에서 조선인이나 동학농민군에 대한 방어목적으로 별도의 병력을 차출하여 보호 및 감시활동을 시행했다.<sup>47)</sup>

일본군 혼성여단의 출병으로 인천, 용산 등지에 약 8,000여 명의 병력이 집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군사적 대응은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은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병력이동을 별도로 시행하지도 않았다. 일본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외교적 수단을 통해 청군과 공동철병을 주장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서울을 방어하는 중앙군이 일본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도 있겠지만,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가용 병력을 집중한 이유도 있고, 무엇보다 조선에 진주해 있는 청군과 서울의 원개세를 비롯한 청 외교관들에 대한 기대가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선이 현실적인 군사대응에 소홀한 사이에 출병한 일본 혼성여단의 규모는 청군보다 약 3배에 해당할 정도로 우세를 가졌으며, 이는 청군과의 전투를 미리 상정하고 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본군 출병에 대한 조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출병한 것으로 불법성을 가진다. 혼성여단 출병에 있어 군사적으로 戰域을 명확하게 서울로 설정한 점은 국가간 전쟁에서 침략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47) 본 논문에서 해군관련 전력동원 및 전투준비, 일본 본토에 대한 청의 공격에 대한 대비한 전력동원 등은 논외로 한다.

국가간 전쟁에서 전역은 쌍방 군사력이 충돌하는 지점이나 상대방의 군사력이 집중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혼성여단의 출병에 있어 일본군부는 공사관의 보호를 최대 명분으로 한 점에서도 서울을 전역으로 상정하고 전시전황이 전무한 지역을 무단 진입하여 전쟁선포도 없이 조선의 국왕을 인질로 확보한 점에서 불법성 뿐만 아니라 침략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을 전역으로 상정했다는 점은 조선군과 전투를 사전에 고려하여 철저하게 준비한 것으로 상호 적대적인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불시에 상대국의 수도와 국가통수권자를 인질로 확보한 점은 청일전쟁에 임하는 일본의 인식을 보여준다.

#### 4. 일본군의 경북공 점령과 조선침략

일본공사관과 출병한 혼성여단은 구체적인 군사작전을 계획하는데 이것이 경북공 점령작전이었다. 경북공 점령작전의 목적은 친일정권 수립, 청일전쟁 명분확보, 조선군 무장해제 및 군사지원 등 3가지였다. 친일정권 수립은 친청정책을 주도했던 민씨정권을 와해시키고 민씨정권과 대립관계에 있던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친일정권을 수립하여 일본군의 조선 출병에 대한 명분을 확립하고 각종 정치·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청일전쟁 명분확보는 조선정부에서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에 진주한 청군을 축출하도록 요구하게 함으로써 청일전쟁의 명분을 확보하고자 했다. 조선군의 무장해제 및 군사지원은 조선에 출병한 일본군의 각종 군수지원 및 일본군이 청군과 아산을 비롯한 남쪽에서 전쟁시 서울 및 후방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위협을 사전에 제거할 목적으로 조선군의 무장해제와 청군축출의뢰를 설정한 것이다.

인천에 상륙한 이후 혼성여단의 구체적인 작전방향 및 주요 주둔지, 활동상황을 정리함으로써 혼성여단의 실질적인 작전목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에 상륙한 선발대는 12일 인천에 상륙한 뒤, 13일 바로 서울을 향해 전진했다. 이때 각종 화물은 한강의 수로를 통해 선박운송하였으며, 선발대 대대장은 星峴에 보병 소좌 宮川進으로 하여금 30여명의 병력으로 수비하도록 했다. 성현은 원래 6월 10일, 오오토리 공사가 귀임할 때 함께 온 육전대의 일부 병력이 수비하던 곳으로 육군 보병이 임무 교대했다. 대위 河南環이 지휘하는 제2중대를 마포에 주둔시켜 수로로 운송되는 일본군의 화물을 보호하고 수상으로 들어오는 세력에 대해 경계하도록 임무를 부여했다. 나머지 선발대 주력은 조선의 허가없이 서울에 진입하여 일본공사관에 주둔하며 경계임무를 수행했다. 당시까지 공사관 경계임무를 수행한 육전대 병력은 인천으로 이동했다.<sup>48)</sup>

한편, 일본의 대본영은 부산, 원산의 수비병력이 없다는 판단하에 6월 12일, 부산과 원산에 보병 1중대를 보내도록 지시했다. 보병 1중대의 주력은 부산으로 보내고, 1중대의 1소대는 원산으로 보냈다.<sup>49)</sup> 6월 18일, 혼성여단의 주력은 인천에 주둔하되 일부 병력을 서울에 진입시켰다. 오오시마는 우선 제21연대 제2대대를 서울에 진입시켜 일본공사관을 경비하던 선발대와 임무 교대시키고, 공병을 용산부근에 주둔하여 楊花鎭에서 혼성여단의 도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이러한 일본 혼성여단의 조선출병 시기를 전후하여 동학농민전쟁은 진정국면으로 전환되고 서울은 사회적 혼란이 없이 평온하였다. 조선과 조선주재 열강의 공사관으로부터 외교적 압박을 받던 오오토리 공사는 혼성여단의 조선출병을 연기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인천에 혼성여단이 상륙하자 서울진입을 연기하도록 오오시마와 협의했다. 혼성여단은

48) 參謀本部 編, 『明治二十七八年 日清戰史』卷1, 東京印刷株式會社, 1904, 107~108쪽.

49) 參謀本部 編, 『明治二十七八年 日清戰史』卷1, 東京印刷株式會社, 1904, 109쪽.

공사관의 입장과 상관없이大本營의 지휘에 따라 군사작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sup>50)</sup> 외교라인과 군사라인의 의견대립은 혼성여단의 신속한 작전개시에 약간의 걸림돌이었지만, 오오시마 여단장은 6월 24일, 인천에 주둔하던 혼성여단의 1차 수송부대를 용산으로 주둔시켰다. 또한, 뒤이어 28일까지 인천에 상륙한 2차 수송부대 가운데, 제21연대 제3대대는 인천지역에 주둔시켜 병참부 및 지역방어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외 부대는 모두 용산으로 이동시켜 서울의 주요 지역에 주둔시켰다.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 1894년 6월 말 혼성여단의 부대배치 현황

부 대	주둔지
보병 제11연대 제1대대	서울
혼성여단 사령부	萬里倉
기병 제5대대 제1중대	
보병 제11연대(제1대대, 제8중대, 제6중대, 1소대 등은 缺)	만리창 고지
야전포병 제5연대 제3대대	
공병 제5대대 제1중대(2분대 缺)	
보병 제11연대 제8중대	屯芝里
보병 제11연대 제8중대 1소대	西氷庫
보병 제21연대(제8중대, 제3대대 缺)	阿峴
제1야전병원	孔德里
위생대	
공병 제5대대 제1중대 1분대	양화진
보병 제21연대 제3대대(제10중대 1소대, 1분대 缺)	인천
제2야전병원	
보병 제11연대 제6중대 1소대	용산병참사령부 수비
공병 제5대대 제1중대 1분대	

※ 출전 : 參謀本部 編, 『明治二十七八年 日清戰史』 卷 1, 東京印刷株式會社, 1904. 115~116쪽.

50) 박중근, 『청일전쟁과 조선』, 일조각, 1989, 27~30쪽.

전체 8천여명의 병력 가운데 1,000여 명은 부산, 원산 등지의 주둔하고, 1,000여 명은 인천에 주둔한 상황에서 기타 군용전선 가설대를 제외한 5,000여 명의 대부대가 서울의 입구인 용산에 주둔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조선, 청, 일본 사이에 철병문제, 일본에 의한 조선의 내정개혁 요구, 조청간 종속관계 파기, 열강의 사태조정 등 다양한 활동과 압력이 대두하여 외교라인을 통해 치열하게 협의가 이루어졌다.<sup>51)</sup> 이러한 외교라인을 통한 협의는 조선의 보호국화 및 청군과의 전쟁이라는 일본군부가 계획한 군사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만책이었다.

혼성여단을 중심으로 한 일본군의 군사작전을 살펴보면, 먼저 일본 공사관의 입장변화가 주목된다. 오오토리 공사의 청일 공동 철병안에 대해 공사관 일등서기관이었던 스키무라는 일본군부의 개전정책을 지지하며 군사작전을 통해 친일정부를 수립하고 청일전쟁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했다. 오오토리 공사 역시 위안 스키이와의 철병안이 무산되면 서 「제1차 絶交書」와 동시에 공동 철병안을 포기하고 실질적인 개전정책의 시행에 동참하게 됐다.

용산에 주둔한 혼성여단은 기본적으로 서울을 포위하고 경복궁을 점령하기 위한 작전을 구사했다. 우선적으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에 포를 설치하여 서울의 주요 지역을 가격할 수 있도록 했다. 남산의 왜성대에 6문의 포를 설치하고, 경복궁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북악산에 포를 설치했다. 혼성여단의 주력이 용산에 주둔한 이유는 용산의 지리적, 전술적 중요성 때문이다. 용산은 남대문을 통해 서울에서 전국 각지로 이어지는 도로를 제압할 수 있는 곳이며, 삼남의 제물산이 서울로 들어가기 위해 육로, 수로의 교역중심지였다. 또한, 용산의 배후에 위치한 남산을 통해 서울을 한 눈에 조망하고 포병을 통해 수월한 포격이 가능한 지역이며, 용산의 넓은 지역은 대규모 군대의 주둔지로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51) 김경창, 『동양외교사』, 집문당, 1995, 379~405쪽.

혼성여단은 서울의 주요 문으로 통하는 길목을 장악하여 출입에 있어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대대규모의 병력을 서울 성문 안으로 진입시켜 서울을 행군했다. 이는 서울의 민심이 흉흉하여 민심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시행됐지만, 실제 일본군의 위용을 과시하여 조선인의 두려움을 유발하고자 하는 심리전이었다. 청군의 추가 파견으로 만주일원의 병력이 평양으로 진출했다는 정보가 접수되면서 혼성여단은 본격적인 경복궁 점령작전을 점검했다.

일본 대본영은 7월 17일, 御前會議를 열어 조선에 출병한 혼성여단의 작전에 관련한 지침을 확정했다.<sup>52)</sup> 작전지침은 조선국왕과 정부를 제압하여 친일정부를 수립하고, 일면 평양에 진주한 청군을 방어하고, 일면 아산방면에 위치한 청군을 공격한다는 내용이였다. 이때 어전회의에 참석한 면면을 살펴보면 참모총장 해군대신 사이고 쓰구미치(西郷從道), 육군대신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해군군령부장 가바야마 스케노리(樺山資紀), 참모본부차장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 육군감독장 노다 히로미치(野田豁通), 육군군의총감 이시구로 타다노리(石黒忠憲), 참모본부 제1국장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해군 제1국장 가쿠다 쓰노다(角田秀松), 참모본부 제2국장 쓰치야 미츠하루(土屋光春), 참모본부 제1국 다무라 이요조우(田村怡與造), 참모본부 부관 오오미 사타다까(大生定孝), 추밀원의장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등이다. 이들 참석자 대부분은 일본군의 확장과 청일전쟁 대비를 강조해왔던 인물들이며, 혼성여단의 창설 및 조선출병을 주장했던 인물들이다.

혼성여단은 지침을 하달받은 이후 7월 18일부터 서울 시내 행군을 강화했다. 특히, 경복궁 주변에 대한 행군은 경복궁 점령작전에 대한 예행연습의 성격이 강했으며, 서울주민의 공포감은 극대화됐다. 서울에서 일본군의 활동강화는 당시 청 원세개의 불안감을 초래하여 마침내 7월 19일, 원세개가 서울을 몰래 탈출하기도 했다. 원세개의 탈출로

52) 陸軍省 編, 『明治軍事史』(上), 原書房, 1966. 906쪽.

서울에서 청 세력은 완전히 축출되었으며, 일본군을 견제할 어떠한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 공백상태가 되었다. 7월 20일, 오오토리 공사는 혼성여단에 경북궁 점령작전을 7월 23일 시행할 것을 전달하자 7월 22일, 혼성 제9여단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경북궁 점령준비를 본격화했다.<sup>53)</sup>

경복궁 점령에 있어 일본군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북쪽으로부터 남하의 가능성이 높았던 청군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비를 위해 용산에 주둔하던 보병 제21연대 제2중대를 7월 22일 파주부근의 임진강 및 落花洞에 배치했다.<sup>54)</sup> 같은 날 왜성대의 山砲를 점검하고, 종로에 야포 몇 문을 설치했다. 또한, 서울의 각 문에 일본군을 배치하여 초계임무를 부여하고, 서울 전역을 순찰하도록 했다. 이렇게 서울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켜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고종의 탈출, 지방의

53) 박종근, 『청일전쟁과 조선』 일조각, 1989. 54~55쪽. 이 때의 계획은 혼성여단 지휘부와 일본 공사관이 협의하여 수립한 것으로 순찰, 타격, 점령, 보호, 경비 등 제반 작전의 임무분담이 세세하게 설정됐다. 20개 항목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각대에 통역을 따르게 한다. 2. 7월 23일 오전 3시반까지 공사로부터 통첩이 없으면 군대는 즉각 출발하여 왕성을 위협한다. 3. 조선군의 발포가 있을 때 정당 방위함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총성으로 식별해야 한다. 4. 일본 거류지 부근은 보병 제11연대 제1대대가 순찰한다. 5. 오전 4시에 출발하여 光熙門, 東大門, 東北門으로 출병하여 경계는 在京城 제1대대가 담당한다. 6. 보병 제11연대에서 南大門에 1소대, 西大門에 2소대가 수비·점령하고, 대대장이 지휘하는 3중대가 市中 大路의 서남을 순찰한다. 7. 각 연대 給養은 本隊에서 하고 제각기 산책하는 일은 엄금한다. 8. 제21연대에 공병 1소대를 따르게 하여 폭약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한다. 9. 오전 4시에 오오시마(大島) 여단장이 入京하면 니시지마(西島) 中佐가 龍山의 諸兵을 지휘한다. 10. 제21연대의 잔류대는 포병 호위를 겸한다. 11. 포병은 武番丁(아현동 북방고지)에 시위한다. 12. 이치노헤(一戶) 少佐대대가 수비하는 諸門은 退兵을 마음대로 한다. 13. 무라키(村木) 少佐는 외국인을 상대한다. 14. 왕이 도망친 후 포위하는 것은 이득이 없기 때문에 철야로 경북궁 부근을 탐정케 하며, 공사관이 담당한다. 15. 철야할 때 서방에 화뿔불을 피운다. 16. 기병 12기는 금일 京城에 파견한다. 17. 부재중인 진영을 방위하는 부대에서 필요가 있으면 야전병원에 약간의 병력을 보낸다. 18. 出門하는 서양인에게는 호위 2사람을 따르게 한다. 19. 제21연대에 기병 7기 및 제11연대의 제2대대에 기병 5기를 따르게 한다. 20. 대원군 호위는 제11연대 대위 카가미 아키라(田上覺)가 1중대를 인솔하여 종사한다.

54) 陸軍省, 『日清戰爭統計集』上卷-1, 海路書院, 2005, 283쪽.

조선군이 서울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했다.

7월 22일, 밤 10시경에 일본공사관에서 오오토리 공사와 오오시마 여단장을 비롯한 일본군부와 외교라인이 모여 23일 새벽부터 진행되는 경복궁 점령작전을 지휘했다. 작전은 제11연대가 동대문, 광희문, 동북문 등을 점령하고 순찰 및 서울시내 경계를 담당하면, 제21연대가 실질적으로 경복궁으로 난입하여 고종의 신변을 확보하고 조선군을 제압한다는 내용이였다. 7월 23일, 새벽 4시부터 시작된 경복궁 점령작전은 왕궁수비대와 접전을 벌였지만, 고종의 신변이 일본군에 확보되자 고종의 명으로 왕궁수비대의 무장해제가 내려졌다. 아침 7시를 전후하여 상황은 종료되었다.

제21연대 제1대대는 영추문을 통해 경복궁으로 진입하여 경복궁의 동서 양쪽으로 우회하여 왕궁수비대와 접전을 벌였다. 제1대대의 일부 병력은 광화문 왼쪽의 장위영을 습격하여 지원병력을 차단시켰다. 평양 병으로 구성된 왕궁수비대는 일본군의 침입에 대응하여 경복궁의 후문이었던 신무문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접전했지만, 약 4배의 정규 일본군에 의해 열세에 있었다. 일본군은 영추문을 먼저 통과하여 신무문을 통해 진입한 병력과 함께 경복궁 향원지 북쪽에 별궁으로 있던 乾淸宮에서 고종의 신변을 확보했다.

실질적인 고종신변 확보, 조선군 제압 및 무력화 뿐만 아니라 일본군은 조선전신국을 점령하여 전보 발신의 기반을 확보했다. 조선전신국의 점령과 전보발신의 기반을 임의로 확보한 것은 경복궁 점령작전의 명분과 전혀 관련성이 없으며, 조선의 군사, 통신기관을 불법적으로 탈취한 것이었다.

7월 24일, 혼성 제9여단장은 주력을 아산방향으로 전진시켜 본격적인 청군과의 전투를 준비했다. 이 날 기준으로 혼성여단의 부대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경북궁 점령 직후 혼성 9여단 부대 배치현황

담당	세부 부대	주둔지	
旅團主力	보병 제9여단 사령부	龍山	
	보병 제11연대(5중대와 1소대 缺)		
	보병 제21연대본부, 제1대대(1중대 缺), 제7중대		
	기병 제5대대 제1중대(1소대 缺)		
	아전포병 제5연대 제3대대(2소대 缺)		
	공병 제5대대 제1중대(1소대 缺)		
	보병 제21연대 제3대대(1중대 缺)	梧柳洞	
東路獨立支隊	보병 제11연대 제11중대	龍山	
臨津江獨立支隊	기병 제5대대 제1중대 1소대		
	아전포병 제5연대 제5중대(1소대 缺)		
	공병 제5대대 제1중대 1소대		臨津鎮
	보병 제21연대 제2중대		
	보병 제21연대 제2대대본부, 제5, 6중대		
龍山兵站守備隊	보병 제11연대 제3중대	京城, 龍山	
京城守備隊	보병 제11연대 제1대대(1중대 缺)		
仁川兵站守備隊	보병 제21연대 제11중대	仁川	
電線架設隊	제1電線架設支隊	梁山	
	보병 제21연대 제8중대(1소대 缺)		
	제2電線架設支隊	楊根	
보병 제11연대 제9중대 1소대			
釜山守備隊	보병 제21연대 제8중대 1소대	釜山	

※ 출처 : 陸軍省, 『日清戰爭統計集』上卷-1, 軍隊運動區域圖圖解, 海路書院, 2005.

1894년 경북궁 점령과 국왕의 신변을 일본군에 의해 강제되는 상황을 초래하도록 조선은 어떠한 군사적 대응을 했는가? 먼저 개항 이후 조선의 군사력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은 개항전후 군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하여 군사력을 증강시켰다. 대원군의 집권 기에는 訓練都監, 禁衛營, 御營廳, 摠戎廳, 龍虎營 등 전통적인 5군영을 강화시켰으며, 병인양요를 계기로 주요 군사요충지에 鎭撫營을 설치하고 砲軍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군을 정비했다. 고종이 친정하자 친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무력기반으로 武衛所를 강화했다. 고종은 1879년과 1880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무위소의 병력을 확충하여 총 병력 4,399명 규모를 유지시켰다. 이 가운데 유료군이 2,590명으로 전체 병력의 약 60%였다. 또한, 무위소 병력 가운데 궁궐 파수를 전담하는 군병을 별도로 선발하여 壯藝廳을 신설했다.<sup>55)</sup>

개항이후 신사유람단과 영선사파견을 통해 군제개혁과 군사력 확충을 위한 노력했다. 신사유람단과 영선사파견은 군사관련 일련의 개혁이 필요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1880년 12월 사대, 교린, 군무, 변정을 전담할 「統理機務衙門」이 신설됐다. 1881년 군제개편으로 兩營體制<sup>56)</sup>가 성립되고 중앙군은 무위소의 2,600여 명, 훈련도감 3,000여 명, 금위영과 어영청의 1,300여 명, 충용청의 145명, 궁궐 숙위병인 용호영의 600여 명 등 대략 7,000~8,000여 명이였다.<sup>57)</sup> 고종은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만들고 이의 군사훈련 교관으로 호리모토 레이조(堀本禮造)를 선임했다. 조선이 근대적 군사훈련을 받는 교련병대를 창설하고 일본군 교관으로 교육하도록 한 것은 당시 신사유람단의 시찰을 통해 청군에 비해 일본군의 군사무기 및 군제가 우수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다.<sup>58)</sup>

고종연간 근대적 군사교육을 도입하여 교련병대를 비롯한 다양한 군대개혁의 시도되었지만, 국민적 통합과 재정적 뒷받침이 없어 청국식, 일본식으로 훈련되는 각 군영 간의 갈등과 분열이 초래됐다. 이는 청군과 일본군의 조선 출병으로 인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55) 배항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2002, 147~149쪽.

56) 『비변사등록』 고종 18년 12월 25일. 兩營체제는 군비를 정비하고 병졸을 조련시켜 통솔을 전제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무위소, 훈련도감, 용호영, 호위청을 武衛營으로, 금위영, 어영청, 충용청을 壯禦營으로 편제한 것이다. 양영체제로 전환되었지만, 실질적인 군사력강화나 도성방어의 강화는 없이 무위소의 차별대우에 대한 임시방편의 조치였다.

57) 배항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2002, 168쪽. 지방군은 강화진무영의 3,000여 명과 각 지방의 포군 3만여 명 규모였다.

58) 『승정원일기』 고종 17년 8월 28일.

군대의 통일적 편제와 통수를 불가능하게 했다.<sup>59)</sup> 교련병대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았던 구식군인들에 의해 1882년 임오군란이 발생하여 국내 군사문제를 빌미로 청군과 일본군의 조선 출병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 군란으로 인해 청군 3,000여 명이 출병하여 군란을 진압하자 와해된 조선군을 대신하여 청군이 서울의 치안을 담당했다. 이는 수도 서울을 청군이 점령한 것으로 이후 청국에 의한 정치, 군사적 종속관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군사적으로 군란 평정을 명분으로 출병한 청군은 장기적인 주둔을 계획하고 조선군에 대해 군사훈련, 군사제도 개편, 무기의 구입과 제조 등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무력지배를 강화했다.<sup>60)</sup>

임오군란이후 청나라 교관에 의해 훈련받는 새로운 군대, 親軍左·右營이 설치되어 우대를 받게 되자 중앙군제는 용호영, 금위영, 어영청, 총융청 등 전통적 조선군 체제와 청군의 영향하에 신설된 친군좌·우영이 대립적으로 병존했으며, 1883년과 1884년에 각각 교련병대를 모태로 한 친군전·후영이 신설되면서 조선의 중앙군제는 전통 조선군식 훈련을 받는 군영과 청군식 훈련을 받는 친군좌·우영, 일본식 훈련을 받는 친군전영 등이 존재하는 기형적인 편제였다. 기형적 편제는 1884년 8월, 통리군사무아문의 별단에 의해 기존 용호영, 금위영, 어영청, 총융청의 병력이 친군 4영에 분속되면서, 군수지원부대였던 친군영까지 포함한 새로운 5개의 친군영체제로 전환됐다.

모순적인 조선의 중앙군제는 갑신정변 당시 일본군식 훈련을 받은 친군전·후영은 정변에 가담하고 청군식 훈련을 받은 친군좌·우영은 정변을 진압하는 등 난맥상을 보였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경험한 고종은 청군의 간섭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난 새로운 親軍別營을 조직하고 강화시켰다. 이러한 친군영은 새로 정립했다는 의미에서 신건친군영

59) 배항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2002, 178쪽.

60) 최병욱, 「임오군란 후 친군제의 성립과 그 모순」, 『군사』 26, 1993, 91~95쪽.

이라 하며, 1885년 친진조약으로 청군과 일본 공사관 호위군이 철수하면서 고종은 친군별영을 중심으로 한 신건친군영체제를 확대 강화시켰다.

그러나 신건친군영은 조선의 재정악화, 연습과 조련의 합리성 강화 등으로 1888년(고종 25) 3영으로 통폐합됐다. 전영과 좌영을 합쳐 壯衛營, 우영과 후영 및 海防營을 합쳐 統衛營, 별영은 總禦營으로 개편하고, 李景夏를 統衛大將, 申正熙를 壯禦大將으로 임명했다.<sup>61)</sup> 이때 이전에 각 영별로 약 500여 명이었던 병력이 1영에 병력 2,250명, 作隊兵 1,960명으로 확충됐다. 3영체제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7〉 1888년 이후 조선 중앙군영

	군영	營色	소속 친군영
3營	統衛營	中營, 黃色	親軍右營, 後營, 海防營
	壯衛營	左營, 青色	親軍前營, 左營
	總禦營	右營, 白色	親軍別營

※ 출처 : 『고종실록』 권25, 고종 25년 4월 경자.

3영체제를 지속하면서 1891년(고종 28) 고종은 서울 외곽방비의 요지였던 蕩春臺와 北漢山城의 수비를 위해 이전 摠戎軍을 3영에서 분리하여 經理廳을 별도로 신설했다. 실질적인 왕궁 호위를 담당했던 친군 용호영을 제외하고 조선의 중앙군은 통위영, 장위영, 총어영, 경리청 등 친군4영체제로 지속되어 1894년 청일전쟁시기까지 유지됐다. 이들 중앙군영 뿐만 아니라 군사력으로 간과해서 안 되는 조직이 1888년 설치된 鍊武公院이다. 미국인 교관에 의해 미국식 군사교육을 시행했던 연무공원은 40여명의 생도들을 대상으로 장교교육기관의 역할을 했다. 연무공원을 통해 양성된 생도들은 중앙군의 핵심이었던 친군 4영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연무공원의 기간요원들도 정부의 핵심요직으로 배치됐다.<sup>62)</sup>

61) 『梅泉野錄』 권1, 상.

62) 『승정원일기』 고종 25년 1월 11일; 5월 19일; 5월 29일; 6월 28일; 7월 2일; 7월

한편, 지방군은 중앙군만큼 신속하게 근대식 편제로 개편되지 못했지만, 중앙의 친군체제를 모방하여 중요 군영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서울의 해로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원군집권기부터 강화됐던 강화도는 親軍沁營,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는 親軍西營, 경상도에는 親軍南營, 경기 연해지역에 京畿海防營 등이 설치되어 필요시 상경하여 중앙군과 함께 훈련했다.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작전시 조선군의 병력현황 및 군사적 대응에 관련한 명확한 사료가 없어 구체적으로 병력 및 전력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병력에 있어 조선군은 편제상 약 10,000여 명 병력이 있었다. 그러나 1880년대 고질적인 재정문제로 탄환의 공급과 봉록 지급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병력은 이보다 훨씬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1894년 동학농민군에 대한 진압병력을 중앙군으로 차출하자는 초기 논의에 대해 고종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갑신정변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던 친군체제의 손실을 우려한 점에서 당시 중앙군이 편제보다는 적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중앙군의 훈련 및 전투능력에 있어서 국왕이었던 고종의 기대수준을 충족하지는 못했다.<sup>63)</sup> 친군체제가 정립되면서 청군과 일본군에 의해 각각 청 군대식, 일본 군대식의 훈련을 받았으며 상호간에 반목도 심했던 사실과 1894년 6월에 들어서면서 고종은 평양출신의

19일; 7월 22일; 7월 29일; 8월 5일; 26년 1월 30일; 2월 1일; 29년 8월 21일; 31년 6월 22일. 연무공원 절목의 제정에서부터 연무공원 참리에 통위영 영관을 임명하고, 연무공원 사첨 이학근 등을 영입하게 하고 모두 승륙하라는 전교 鍊武公院 司籤 李學均, 金振聲, 朴鎭奎 등을 仍任하도록 하고 특별히 陞六시키도록 전교하기도 했으며, 통위영과 장위영의 哨官에 鍊武公院 學徒인 訓鍊僉正 尹景根, 別軍職 吳普泳, 宣傳官 白命基, 訓鍊僉正 趙義觀, 宣傳官 李秉武 등을 나누어 임명하였으며, 鍊武公院 學徒 중 우수한 초관 愼德晟, 李軫鎬, 權承弼, 劉信熙 등을 部將으로 임시 임명하였다가 자리가 나면 陞資하도록 했다. 또한, 연무공원의 조련이 효과가 있다고 하여 교관에게 직함을 높여주기도 했다.

63) 『梧下記聞』 首筆.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1, 36~37쪽. 황현은 중앙군영이 청과 일본의 교육을 받으며, 봉급·장비·군복 등에 우대를 받아 교만하고 훈련에 불충실하다고 하고 당시 胡兵隊, 倭兵隊로 불릴 만큼 인식이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부대를 왕궁호위부대로 차출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동학농민군의 진압병력으로 장위영의 일부를 파견하는 등 병력 차출도 있어 전력의 열세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 무엇보다 일원적인 군사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한 점이 문제였다. 일본군은 명치유신 이후 서남전쟁 등 각종 전쟁을 통해 전장에 익숙한 군인출신이 군사지휘관으로 숙련된 부대를 지휘했으며, 사단편제 등 부대편제를 전투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하였고, 대본영을 비롯한 일원적인 군사작전지휘체계가 수립되어 효율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했다. 이에 비하여 조선군은 지휘관이 대부분 전문적인 무장출신이 아닌 문관의 대신들로 구성되어 전장경험이 부족하고 각 군영을 총괄하여 일원적으로 군사작전을 지휘할 지휘체계가 부재했다.

군사작전에 필수적인 군사정보의 측면에서도 일본군은 조선군에 대한 세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병자수호조규를 체결하는 시점부터 조선의 군비가 허술한 점을 지적하고 부국강병의 방법을 강조하여 각종 군사기술을 교육시켜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으며,<sup>64)</sup> 별기군의 교관이었던 호리모토 레이조(堀本禮造)를 통해 조선군의 장단점은 모두 일본군에 의해 파악되었다. 1894년을 전후한 시점에는 일본 참모본부의 육지측량부를 중심으로 조선의 지리정보 및 군사정보를 완벽하게 수집하여 파악하고 있었다. 기타 참모본부에서 파견된 정보원들에 의해 기타 정보들이 수시로 일본군 지휘체계에 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주재 일본공사관, 영사관의 외교라인을 통해 조선 정부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군사진압 상황이 보고될 정도로 조선군의 모든 군사정보가 일본군에 의해 파악됐다. 이에 반하여 조선군은 출병한 일본군 혼성여단에 대한 구체적인 병력현황 및 특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1894년 경복궁 점령작전 직전의 조선군이 인식한 상황판단도 전반적으로 오판이었다. 조선은 일본 혼성여단의 조선출병 이후 군사적 위협을

64) 『승정원일기』 고종 13년 4월 15일.

인지했지만, 경북궁 점령작전과 같은 군사작전의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오판했다. 특히, 청군이 평양과 아산지역에 진주해 있는 만큼 청군을 대상으로 전면전투를 감행하지는 못할 것이란 판단이었다.<sup>65)</sup>

일본군은 경북궁 점령작전의 마무리수순으로 흥선대원군의 입궐 및 일본에 적대적이었던 민씨정권에서 친일정권의 수립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오전 11시 일본군 보병 제11연대 제6중대의 삼엄한 무장하에 흥선대원군이 강제로 입궐했다. 새벽 3시부터 흥선대원군의 집을 포위한 일본군은 입궐을 강요했지만, 일본군의 의도를 인지한 흥선대원군은 쉽게 응하지 않았다. 조선왕실에 대한 안전을 전제로 흥선대원군이 입궐한 시간이 오전 11시였다.

일본군은 보병 제21연대 제2대대의 경북궁 수비를 제외한 잔여 병력의 막영지 철수를 오후 6시에 완료함으로써 경북궁 점령작전을 종료했다. 작전종료 시점에서 일본군은 처음 설정한 군사작전 목적 가운데 친일정권 수립은 흥선대원군의 거부로 약간 지체되었지만, 이미 실제 구금상태였던 고종을 빌미로 흥선대원군의 입궐을 이끌어 냄으로써 민씨정권의 와해를 달성했다. 그러나 청일전쟁의 명분을 확보하는 문제는 신속하게 달성하지 못했다. 조선정부에서 대청관계와 일본군의 강압적인 군사압박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에서 청군의 축출을 건의하는 문서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일본군은 강압과 위조를 자행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성환전투를 치루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선군의 무장해제 및 군사지원은 상대적으로 고종의 신변을 확보함으로써 형식상 큰 저항없이 시행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군의 군수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동원된 조선민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경북궁 점령작전은 일본군의 조선출병이 조선 침략의 일환으로 전개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조선출병의 불법성은 제외

65) 『梅泉野錄』 권2, 고종 31년 6월 20일.

하더라도 왕궁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국왕을 인질로 하여 친일정부를 출범시킨 점은 조선침략을 통해 조선을 보호국화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군사작전의 측면에서 서울을 지방과 차단하여 고립시킴으로써 조선군의 군사활동을 억제하고, 국왕의 신변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조선군의 전투의지를 상실하도록 함으로서 작전효과를 최대화했다. 경복궁 점령작전을 통해 일본군은 고종을 비롯한 조선왕실과 정부를 군사적 점령하에 두게 되었다. 군사적으로 고종을 비롯한 조선정부를 위협하여 강압적으로 청군축출 의뢰를 받아내고 이를 근거로 본격적인 청일전쟁으로 나아갔다.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해군력이 북양해군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기민한 작전과 우세한 화력을 바탕으로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점에 반하여 육군은 오래 준비된 징병정책과 동원계획이 승패를 결정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sup>66)</sup>

## 5. 맺음말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지속적으로 군비확장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군사교육을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열강으로부터 도입함으로써 군제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병자수호조규 이후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여 극단적인 정한론의 입장을 보이다가 갑신정변 이후 청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하고 해군력 확장을 중심으로 한 군비증강을 추진했다. 조선의 보호국화하고 청일전쟁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동학농민전쟁이 발발하자 공사관 및 일본인 보호를 명분으로 조선에 출병했다.

66)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1500~1900』, 나남출판, 2002, 242쪽.

청일전쟁과 관련하여 일본 혼성 제9여단의 조선출병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일본군의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았다. 비록 청일전쟁을 준비했던 일본이지만, 동학농민전쟁으로 급히 군대를 출병 시키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일본군부는 단시일의 소집 및 수송을 통해 육전대, 선발대, 1차 수송부대, 2차 수송부대 등 비록 2~3일간의 차이를 두더라도 병력을 서울에 진입시켜 군사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했다. 또한, 전역이 조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출병부대를 혼성부대로 구성함으로써 경복궁점령, 이후 청일전쟁의 여러 육전에서 효과적인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다.

청일전쟁과 일본군의 조선 출병에 있어 일본군이 소기의 군사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중요한 점은 방대하고 지속적인 정보의 수집이었다. 조선과 청에 주재한 공사관을 통한 정보수집, 참모본부를 중심으로 한 은밀한 군사정보수집, 육지측량부를 통한 군사지리정보의 수집 등이 일본 대본영, 혼성여단 등 군사조직의 군사작전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일본군의 조선출병은 청일전쟁에 임하는 일본군의 기본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일본군은 긴급하게 혼성여단을 편성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조선에 출병시켜 공사관 보호라는 명분하에 조선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서울에 진입했다. 여단규모의 병력을 서울에 진입시켜 주둔하고 기습적으로 경복궁을 점령함으로써 처음부터 조선군과 전투를 예상하였으며, 조선의 서울을 조일간 군사적 충돌의 공간, 즉 전역으로 삼았던 점은 일본군의 조선출병이 가지는 불법성 및 침략성을 보여준다.

혼성여단의 경복궁 점령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다양한 군사적 결과가 이어졌다. 일본군의 서울진입 및 경복궁 점령에 대해 아산에 주둔하던 청군이 북진하고 일본 혼성여단이 남진하여 성환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다. 군사지리정보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독일식 군사훈련을 받은 혼성여단이 승리하면서 청일전쟁의 전역은 평안도로 옮겨졌다. 지속적으로

막강한 북양해군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력을 확장한 일본해군은 청의 추가병력을 차단하기 위해 풍도에서 최초의 해전을 벌여 승리한다. 톤수에 치중한 청의 해군력에 비하여 기동성과 화력에 집중한 일본해군의 승리라 할 것이며, 이후 청일간 벌어지는 황해해전, 여순전투, 위해도해전 등에서 일본해군의 연승이 이어졌다. 일본군의 불법적인 서울진입 및 경북궁 점령에 반발하여 동학농민군이 다시 봉기하면서 우세한 화력과 각지의 군사지리정보를 확보한 혼성여단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지만 일방적으로 혼성여단에 의한 잔혹한 진압작전이 전개되어 농민군의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 조선군의 경우는 친일정부가 수립되면서 일본군에 대한 조선군의 예속화가 진행되어 차후 조선군의 체계적인 대응에 많은 한계를 가져왔다.

[원고투고일: 2014. 10. 1, 심사수정일: 2014. 11. 20, 게재확정일: 2014. 11. 21]

주제어 : 청일전쟁, 동학농민전쟁, 일본군, 출병, 경북궁 점령, 도발, 조선 내정개혁론, 혼성 제9여단, 개전, 철군

<ABSTRACT>

A Review of the occupation of Gyeongbokgung(景福宮) by Japanese military from the military historical view in the period of Sino-Japanese War

Kim, Kyeong-lok

The Sino-Japanese War(清日戰爭 : 1 August 1894 - 17 April 1895) was broken out between the Qing Dynasty and Japan, in primarily order to control of Joseon. After more than six months of continuous successes by Japanese army and naval forces and the loss of the Qing's port of Weihaiwei(威海衛), the Qing leadership sued for peace with Japan in February 1895.

The study of the existing academic materials on The Sino-Japanese War and Donhak Peasant War(東學農民戰爭) was political, diplomatic history centered on one side. There exists a limitation that military aspects of battle is overlooked. This study was on the analysis of the Sino-Japanese war from the military point of view, and on the research for Japanese army's process of deployment.

Japan was stepping up its military power by the reorganization of a military system since Meiji restoration(明治維新). After Gapsin Coup(甲申政變) in Choseon, Japan started to think Qing in all as a potential enemies and to strengthen the military power, especially naval forces.

When Donhak Peasant War was break out, the Japanese government decided that the Japanese army(混成 第9旅團 : a 9th mixed brigade) was dispatched to the territory of Choseon. On the 30th of May the Japanese government made it clear that it

would deploy its troops to Choseon if the Qing dynasty decided to send its forces to the same area, Choseon. The deployment of force was expected to suppress the Donghak peasant forces and secure Japan's exclusive control over Choseon by carrying out the reform of its internal affairs.

Choseon Dynasty immediately denounced Japan's dispatch and requested for withdrawal of troops out of the country. Japanese military forces occupied Gyeongbokgung(景福宮) and hold king Ko-jong(高宗) as a hostage, and Japanese government made the pro-Japanese party take power to reform of Choseon's domestic political systems. The Japanese government insisted that the occupation of Gyeongbokgung by its military forces would be only as a response to the Joseon army provocation of war. These historical events showed the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ward Choseon.

On the crisis of the country, Donghak peasant army rose in arms against the Japanese army. To conclude, the deployment of Japan's military forces to Choseon is thoroughly prepared beforehand according to the elaborated plan and they started a war, and consequently had forcibly occupied the Choseon dynasty.

Key Words : Sino-Japanese War, Donhak Peasant War, Japanese army, dispatch, Occupied Gyeongbokgung, provocation, Argument of Reform of Joseon domestic politics, 9th mixed brigade, start a war, withdrawal of troops

